

① 이정현 선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첫 여당 의원 탄생하나 <1988년>

- ② 권은희 득표율은?- 전략공천·재산 논란에 60% 넘길지 관심
- ③ 전남서 전국 최고 득표율 나올까-담양·함평·영광·장성 유력
- ④ 진보 정당 선전 할까-광산을 장원섭 20% 이상 득표 가능성

광주·전남 4대 관전 포인트

광주·전남지역 4곳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와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득표율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첫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 탄생하나=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광주·전남에서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 후보와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의 양강구도로 전개되는 순천·곡성 보궐 선거 막판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면서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이 후보는 '예산폭탄론'과 '지역발전론'을 내세우며 지역민심을 파고든 결과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지역 정서가 남아있는데다 '몸치마 2번 투표' 경향,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숨은 2번표'가 기표소 안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새정치연합 전남도당 관계자는 29일 "선거 중반 이정현 후보를 얘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지만 선거 막판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노력으로 박빙 양상으로 변했다"며 "결과는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광주의 딸' 권은희 득표율은=광주 광산에 출마한 권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의혹을 폭로했던 당사자로서 이번이 없는 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전략공천 파문 등으로 인해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관심사다.

더욱이 새누리당 송환기, 통합진보당 장원섭, 정의당 문정은 후보 등이 출마해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져 표를 나눠줘야 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지역의 특성과 공천 과정의 잡음 등으로 권 후보가 60% 이상을 얻기 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0%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사실상 권 후보가 승리했다고 주장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 최고 득표율은 전남이 유력=여야가 승리를 확인하는 영·호남에서 최고 득표율이 나오는 전례로 볼 때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울산 남구를, 제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이 후보지역이다. 하지만, 호남 출신이 상당수 살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출신지 인구 비례를 고려할 때 전국 최고 득표율은 전남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또 전남지역 2곳 중에서 후보가 단 2명만 나온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 최고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진보정당 선전 여부=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진보정당의 선전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6월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통합진보당 박오열 후보 16.6%,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가 10.9%의 득표율을 올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면 '선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로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가 20% 이상의 득표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곡성의 통합진보당 이상수 후보는 이정현·서갑원 후보의 치열한 접전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분류기 잘 돌아가나...개표소 점검 7·30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광산구청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與 “국가 대혁신·경제 살리기 과반의석 절실” 野 “한표 한표로 박근혜 정권에 경고 보내야”

새누리·새정치 대표 마지막 지지 호소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을 하루 앞둔 29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이날 수원 팔달구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민생경제 활성화로 서민의 주름살을 펴 드릴 수 있게 도와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혁신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가 대혁신,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보선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국민 안전법안 국가 대혁신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원내 안정적 과반 의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7·30 재보선에 대해 “세월호와 인사참사, 유방연 수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수원 영통에 설치된 천막현장선 거상행사에서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번 선거가 “세월호 참사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적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10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그라도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세력은 제1 야당인 새정치연합 뿐이다. 새정치연합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을 견제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투표해야 바뀐다”면서 “한 표 한 표로 박근혜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8석이면 승리” 새정치 “6석이면 무승부”

여야 승패 기준점 ‘엄살 모드’

7·30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승패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기대 성적을 낮춰 잡으면서 엄살을 부리고 있다.

15곳 선거구 가운데 원래 새누리당 지역구는 9곳,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5곳과 1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29일 현재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곳은 여당 텃밭인 부산 해운대·기장갑과 울산 남구를 등 영남권 2곳과 대전 대덕과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등 충청권 3곳 등 모두 5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텃밭인 광주 광산과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호남권 3곳에서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5곳과 서울 1곳, 순천·곡성 등 나머지 7곳은 여야 모두 ‘박빙 우세’ 내지는 ‘경합’으로 분류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승리 기준을 8석으로 잡으면서도 9석까지 기대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승리기준을 6석이라고 보면서도 최대 8석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8석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에게 안정의식 확보를 꼭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문준 의원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9대 6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래 야당의의석은 5석이었고 1석이 비교적단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6석을 확보하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과반인 8석은 가져와야 이긴다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와 정치적 구도를 고려할 때 새누리당은 9석 이상을, 새정치연합은 8석 이상을 각각 차지했을 때 ‘승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HNT 하나투어

대한항공으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Travel 터키일주

터키 출발일 9/24 (수), 10/15(수), 10/22 (수), 11/3(월), 11/17(월)

<p>✈ EMOF03 - KE</p> <p>편안한 터키 일주 9일 동굴 호텔 숙박 + 중간항공 2회</p> <p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padding: 2px;">총 상품가격 3,475,500원 ~</p> <p style="font-size: small;">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 이스탄불,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콘야, 아피온, 안탈리아, 파묵갈레 에페소, 이즈미르 ○ 10명 이상 인솔자 동행, 중간항공 2회, 가이드 + 기사 경비 포함 100유로 상당 선택관광 포함 (안탈리아 유람선 & 발리덴스 공연), 온천호텔 숙박, 1일 생수 1병 제공, 수신기 제공, 터키 지도 제공 ○ 다양한 케밥체험 (함아리 케밥, 쉬쉬 케밥, 아다나 케밥), 와인이 곁들여진 양갈비 특식, 업그레이드 한식 제공 	<p>✈ EMOF03 - KEX</p> <p>알찬 일정 터키 일주 9일 업그레이드 호텔 숙박</p> <p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총 상품가격 2,574,700원 ~</p> <p style="font-size: small;">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90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수), 10/15(수), 10/22(수), 11/3(월), 11/17(월) ○ 이스탄불, 앙카라,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묵갈레, 에페소, 아이발릭 ○ 10명 이상 인솔자 동행, 대항버스로 이동 ○ 다양한 케밥체험 (함아리 케밥, 쉬쉬 케밥, 아다나 케밥), 고품질 케밥 특식
<p>✈ AAQF71 - KE</p> <p>태국/미얀마/라오스 5일 골든트라이앵글 3개국 + 라오스 1박</p> <p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padding: 2px;">총 상품가격 1,010,800원 ~</p> <p style="font-size: small;">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수), 10/19(일) ▶ 치앙마이, 라오스, 미얀마 ○ 가이드 + 기사 경비 포함, 미얀마 도착비 포함, 라오스 맥주 맛보기, 붕태우 탐승 체험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정정부원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지보험료, 현지관광인원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순에 따라 자유여행 상품에 참여 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착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권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차] 차량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의 사전 통보를 합니다. ■ [관광사망자] 동해번호 02002-1889-6 (충주구) 충주구 인사동길 11 하나투어 여행 상담 센터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교대일 이상 2인 1실/호텔명 항공/버스/레리(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창찬/생리현상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